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박성중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초안하텔: PSPD, 뉴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

수 신 각 언론사 문화/학술/과학부 담당 기자
발 신 참여연대(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 담당: 송영민: 723-5302)
제 목 시민강좌: 「21C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관한 안내
날 짜 1998. 2. 17. (총 4 쪽)/(별첨자료- 강의 일정 등 첨부)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참여사회아카데미> 봄 강좌
"21세기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과학과 사회를 잇는 교육, 과학과 페미니즘의 만남,
영화속의 과학기술 등 다양한 내용 담다

일시 및 장소: 1998. 3. 18 - 5. 13(매주 수요일), 오후 7시/참여연대 강당

1.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은 3월 18일부터 9주에 걸쳐 <참여사회아카데미>에서 "21C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의 시민강좌를 개설한다.
2. 이 강좌는 다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과학기술 분야에 관해, 대중을 위한 전문강좌로 기획하여 정보화와 기술혁신만이 우리 사회를 장미빛 미래로 이끌 수 있다는 '과학기술 지상주의'의 허와 실에 대해 균형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이 강좌는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이 시민, 학생 그리고 사회활동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대중적 이해와 시민적 접근을 위한 총 9회의 강의로, 강사진은 대부분 현재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다.

3. 강의 내용

과학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부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난해하고 어려운 것인가?

지금까지 과학은 이른바 '블랙박스' 속에 가려져 일반인들은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에서는 과학기술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많은 사

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힘주어 강조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과학과 기술은 열려져 있지 않다. 이 강좌의 목적은 그동안 과학기술을 감싸고 있던 객관성과 절대성이라는 신화를 벗겨내 과학과 기술의 본 모습을 밝혀내고, 과학을 사회와 인간이라는 폭넓은 배경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21세기를 눈앞에 둔 오늘의 뉴턴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과학의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정보화, 생물공학, 페미니즘과 과학 등 최근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들을 깊이있게 다루고, 과학과 사회를 잇는 교육, 시민과학의 정립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학과 사회를 잇는 교육은 STS 교육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를 통해 진정한 과학교육의 방안을 찾는 교사와 예비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 수강 시기와 수강 신청 방법

봄 강좌는 3월 18일(수), 첫 강좌 '뉴턴적 패러다임의 종언'을 시작으로 5월 13일, '전문가 과학에서 시민과학으로'까지 9주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강좌를 진행하는 동안 수업의 수강생과 강사와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과학유적지답사 등의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해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강 신청은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이나 <참여사회아카데미>로 문의해야 하며 전화접수도 가능하다.(접수:김미란Tel:723-5304, 상담:송영민723-5302)

5. 보론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은 과학기술의 정책과 제도에 있어 시민의 참여로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모임으로 시민, 학생 여러분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과학기술 제도연구팀, 국제협력사업팀, 출판 및 시민교육사업팀, 학생사업팀, 기관지사업팀(다른과학 편집위) 등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전문가 주의를 넘어 시민과학을 모색하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으로(담당:송영민 간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일정 및 세부내용과 강사진 소개

■ 1주(3월 18일): 뉴턴적 패러다임의 종언

과학혁명이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지배적이었던 뉴턴-데카르트 패러다임이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카오스, 진화, 발현, 불확실성 등의 핵심어구를 강조하면서 물리과학에서 경제학까지 출현하고 있다. 뉴턴-데카르트 패러다임의 논리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의 논리를 알아본다.

강사: 김동광/과학세대 대표, 한겨레문화센터 강의, 고려대 과학학협동과정 석사과정

■ 2주(3월 25일): 정보,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

기술은 인간과 민주주의라는 문제와 동떨어질 수 없다. 지금까지 기술이 많은 문제점을 빚은 이유는 이러한 측면들이 간과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화와 정보화사회 답론은 인간과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강사: 강정인/서강대 정외과 교수

■ 3주(4월 1일): 복제양 돌리와 그 후

복제양 돌리 이후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복제'로 치달아 인간 복제의 가능성과 윤리적인 문제에 과도하게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출현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생명공학의 문제점,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낳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강연에서는 생명공학의 전반적인 발상의 문제점, 환원주의, 게놈(Genome)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강사: 이필렬/방송통신대 교양과정부 교수

■ 4주(4월 8일): 과학과 페미니즘의 만남

최근 페미니즘은 "객관적 과학"이라는 통념에 가장 직접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 과연 과학은 객관적인가? 성호르몬, 두개골학, 사회생물학 등 과학의 역사에 묻어있는 남성주의적 색채를 과학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오늘날의 과학은 이런 견해로부터 자유로운가?

강사: 하정옥/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5주(4월 15일): 영화속의 과학기술

영화는 일반인들의 견해를 보여주는 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예측을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속에 나타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의 지배적 이미지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사회를, 미래를 읽어내려고 한다.

강사: 김명진/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 6주(4월 22일): 과학기술의 포스트모더니즘

몇 년째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는 과학에도 예외는 아니다. 과학지식사회학이나 기술사회학의 최근 성과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명제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과학지식사회학과 기술사회학의 논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과 과학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강사: 송성수/산업기술정책연구소 연구원, 서울대 과학사 및 과학철학 박사과정 수료

■ 7주(4월 29일): 과학재난, 환경위기 그리고 과학기술

대형사고와 환경파괴가 점점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들은 현대의 과학기술의 속성과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른바 과학재난이라고 일컫는 현대의 대형사고와 환경파괴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강사: 박병상/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장, 이학박사

■ 8주(5월 6일): 과학과 사회를 잇는 교육

일반인들이 체계적으로 과학을 접하게 되는 장은 초중등 과학교육 현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은 과학적 사고의 훈련이라기 보다는 지식의 전달이라는 협소한 차원으로 국한되고, 많은 학생들은 과학을 '방정식 풀이'나 '개념외우기'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본 강의는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과학교육의 세계적인 동향이라 할 수 있는 STS(과학·기술·사회) 교육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다루며, 우리 현실에 맞는 과학교육의 모델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찰해본다. 현직교사나 예비교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사: 최경희/이화여대 과학교육학과 교수

■ 9주(5월 13일): 전문가과학에서 시민과학으로

과학기술은 전문가들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 여러 학문의 성과, 민주주적인 요구는 '시민과학'의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본 강의는 시민과학을 위한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이를 위한 서구의 실험적 제도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강사: 이영희/연세대 사회학 박사